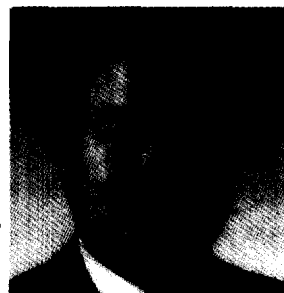


學會 會長職을 마치면서



변 승 봉

(大韓電氣學會 會長)

8 000 會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大學의 講壇에서, 企業의 現場에서 혹은 研究室에서 얼마나 手苦가 많으십니까!
實로 多事多難하였던 丁丑年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會員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하면서 作別의 人事를 드립니다.

一年의 歲月이 참으로 빨리도 지났습니다.
年初에는, 30餘年 동안 研究所 울타리 안에만 安住해 있던 本人이 大韓民國의 代表的 大學會의 살림을 맡게 되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이 太山 같았습니다마는 多幸히도 會員여러분의 뜨거운 協助를 많이 받게 되었으며, 特히 實務를 맡으셨던 學會會長團과 理事님들의 희생적 奉仕로 一年間의 會長職을 大過없이 마치고 本職으로 復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今年는 特히 우리 學會가 創立된지 50周年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半世紀의 歷史와 國際的 學會로서의 권위와 명예에 어울리게 紀念行事와 各種紀念事業들을 多樣하게 企劃하였으나 經濟的 不況을 맞아 부득이 最小限으로 縮小할 수 밖에 없었음을 告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學會는 會員數와 豫算規模에서 뿐만 아니라 學術活動과 國際交流에서도 先進國이 注目하는 名實相符한 國際的 學會로 發展하였습니다.

지난 7月の 50周年紀念式 때에는 우리 學會와 親善協定을 맺고 있는 日本電氣學會와 中國兩大 學會인 中國電機工程學會, 中國電工技術學會에서 會長들이 直接 大規模의 祝賀使節團을 인솔하여 왔으며 또 그들 學會의 全國大會에 우리 學會代表團을 招請하여 特別講演을 要請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學會는 電子·通信·情報등 6個 學會와 共同으로 운영하는 'Journal of EEIS'를 통하여 年間 50篇의 英文論文을 發表하고 있으며, 夏季學術大會와 秋季學術大會에서 1,000篇, 그리고 月刊 論文誌를 통하여 年間 300篇의 우수논문들을 發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學會의 夏季學術大會는 1,500名의 大家族이 모이는 祝祭로 昇化되었습니다.

지난 여름밤, 全北支部長께서 모시고 온 全州 道立國樂院 教授들과 같이 우리 會員들이 한데 어울려서 즐겼던 唱과 강강술래 놀이는 우리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會員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곳 저곳에서는 經濟 위기의 신음소리가 심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도 심각하여 30年 40年에 걸쳐 겨우 이룩해 놓은 漢江의 奇蹟이 하루아침의 이슬로 살아져 버리거나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時點에서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도 없으며, 두려운 나머지 希望마저 상실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풍요로운 時代에 태어난 20代, 30代의 靑年들은 혹시나 잘 모를지도 모르나, 가난한 時代를 살아온 우리 어른 世代들은 지금보다 더 나쁜 경험들을 수 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動亂으로 사랑하는 家族과 친지들을 잃고 깃더미로 變換한 住宅과 産業施設, 山과 들에서 주먹으로 땅을치며 통곡도 하였으나 우리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모진 戰爭에서도 살아남은 영특한 國民들이었습니다. 200불도 채 앞되는 극빈 상태에서도, 소팔고 논밭 팔아 子女들을 大學까지 보낸 國民의 教育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하면 된다”, “100억불 수출에 1000불 소득,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指導者의 말씀을 呪文처럼 외우면서 밤을 낮으로 일하였습니다.

會員 여러분!

지금 우리의 經濟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에게 4000萬kW를 넘는 電源設備이 이미 있으며, 全國을 거미줄 같이 누비는 高速道路網과 全世界로 뻗어나간 輸出市場이 있습니다.

우리의 産業設備는 超現代의이어서 競爭하기에 손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나머지 기적같은 富貴에 잠시 눈이 멀었던 우리의 意識을 다시 깨웁시다!

會員 여러분!

허리띠를 한코씩만 안으로 바짝 조여매고 다시 한번 땀시다. 그래서 이 위기를 오히려 轉禍爲福의 好機로 만듭시다.

힘냅시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自信을 가지고 새해를 設計합시다. 우리가 眞心으로 두려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希望의 상실입니다. 힘냅시다.

새해에 福 많이 받으십시오!

1997年 12月 23日

邊勝鳳